

# 《여인무사》의 마이너리티 담론

—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영숙\*

## <目 次>

들어가는 말

1. 마이너리티 담론
2. 극복 대상으로서의 여성성
3. 유목적 디아스포라
4.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끝맺는 말

## 들어가는 말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를 다룬 문학이란, 대개 다문화사회에서 주류집단과의 갈등을 겪는 소외된 집단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단일민족이나 단일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보다 여러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며 대체로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색채를 띠게 마련이다. ‘마이너리티’ 하면 대개 현대문학에서 소수민족,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의 인물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고전문학에서도 마이너리티는 존재했으며 권력 단체에 저항하는 피지배 집단이나 그 집단을 이끄는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특히 근대 이전 소수민족, 즉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다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고전문학에서는 지배세력인 漢族에게 맞서는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소수민족과 지배 권력인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중국고전문학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담론은 수면 위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주요 주제에서 부수적 문제로 인식되거나 후대 독자들에게 의해 새롭게 조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고전문학 樂府〈木蘭詩〉를 새롭게 구성한 중국계 미국작가 맥신 홍 킹스톤의 《여인무사》<sup>1)</sup>에 대한 탐구는 고전문학 속 이야기와 형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여 현대 문학에서의 담론을 가능케 하고 현대사회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고전문학 속 인물의 형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여인무사》는 1970년대 미국의 소수민족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중국의 고전문학 樂府〈木蘭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목란은 고전문학에서 忠孝 등 사회교화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던 인물로 인식되었으나, 《여인무사》를 통해 1960년대 미국사회 속 중국계 이민자와 여성이라는 마이너리티의 대표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필자는 효녀와 충신으로 이미지화된 樂府〈木蘭詩〉의 주인공 목란과 그 이야기의 시대적 변천 및 문화적 수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목란이 지닌 특수성이 고급과 동서양을 초월하여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형상과 주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수용되고 전파되는 것을 가능케 하였음을 고찰한 바 있다.<sup>2)</sup>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목란이 지닌 다양한 특수성은 바로 마이너리티적 성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맥신 홍 킹스톤은 일찍이 목란의 마이너리티적 성향에 주목, 《여인무사》에서 1960년대 미국사회의 이민2세대 동양인 여성이라는 특성을 잘 표현해 내었으며, 이것이 필자가 《여인무사》를 마이너리티 담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1) 'The Woman Warrior'는 '여전사'·'여인무사'·'여용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女勇士』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女전사》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나, 학술연구에서 '여인무사'의 용어를 대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The Woman Warrior : a Memories of Girlhood Among GoastsThe Woman Warrior》(Maxine Hong Kingston, Vintage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989), 《女勇士—一個生活在“鬼”中間的女孩的童年回憶》(湯亭亭 著, 李劍波·陸承毅 譯, 漓江出版社, 1998.2), 《女전사》(맥신 홍 킹스톤·서숙 옮김, 황금가지, 1998) 세 권의 텍스트를 참조했다. 본고는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여인무사》의 텍스트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이영숙,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 숙명여대 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3.

유이다.

《여인무사》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연구는 그간 영문학계에서 끊임 없이 진행되어 왔다. 안은주는 〈맥신 흥 킹스틴의 ‘중국’과 ‘미국’ 재현 :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sup>3)</sup>을 통해 1960년대 미국의 반문화운동 이후 확산된 다문화주의 및 이민 이주자의 관점에서 동양인의 미국인 되기를 통해 《여인무사》의 목란 형상 및 주제를 연구하였다. 박진숙은 《여인무사》와 애니메이션 〈물란〉 속 두 목란의 변이를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비교고찰 하였다.<sup>4)</sup> 유강하는 樂府〈木蘭詩〉와 《여인무사》의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목란이야기가 미국 사회 이민자의 치유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편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했다. 특히 전통문화와 미국문화라는 두 이질적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킹스틴이 두 문화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치유적 의미에서 살펴보고 있다.<sup>5)</sup> 이밖에도 페미니즘적 관점, 문화정치적 관점 등 당시 미국사회의 첨예한 문제였던 사회문제 담론의 텍스트로 《여인무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고는 위의 연구들을 참고로 삼아, 목란 개인의 젠더적 독립성·유목적 도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저항과 혁명이라는 목란의 마이너리티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목란의 문화적·사상적·사회적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차별의 극복과 소수민족 문제 해결 및 다문화주의 확산에 어떠한 효용성을 띠는 지도 논의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젠더적·디아스포라적 갈등이 심리적·사회적으로 극복되는 과정을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에 대입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학과 문화의 혼종성과 역할의 효용을 고찰해 보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과 문화에 흡수, 재생산되어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수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3) 안은주, 〈맥신 흥 킹스틴의 ‘중국’과 ‘미국’ 재현 :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 서울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

4) 박진숙, 〈오리엔탈리즘을 넘어-킹스틴의 《여인무사》와 영화 〈물란〉에 나타난 물란의 변이〉, 《현대영어영문학》 제50권 4호, 2006.11.

5) 유강하, 〈이야기의 재구성, 治癒를 위한 스토리텔링 : 木蘭 故事 再編: 킹스틴의 《여인무사》(원 호랑이들)장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 (2009년 6월), 435-464쪽.

## 1. 마이너리티 담론

최근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화로 인해 하나의 영토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과 다양성을 양산해 내었다.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디아스포라(diaspora)적 범주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바라보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적 거리감과 이질감은 이미 국가와 영토, 민족,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이중성을 수용하고 이를 기존 문화에 흡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적 혼종과 재창조의 가능성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비영토화, 초월통적 문화의 수용, 다음성화(multivocality)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권리 재정립, 정체성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수인종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기존 문화에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기능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sup>6)</sup> 시대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의 영향력 하에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중국계 미국인들의 삶을 묘사한 《여인무사》속 목란 형상 고찰은 다문화주의와 소수인종의 디아스포라적(diasporic) 혼동성과 정체성 찾기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것은 《여인무사》가 작가 맥신 홍 킹스턴이 중국계 미국 이민 2세와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은 다중의 경험과 갈등을 자전적으로 쓴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인무사》에 등장하는 목란이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닌 인물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목란은 누구인가? 어떠한 인종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이 킹스턴으로 하여금 목란 이야기에 마이너리티적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소수자 혹은 마이너리티(minority)는 다수자 혹은 메이저리티(majority, main

6) 안은주, 〈맥신 홍 킹스턴의 '중국'과 '미국' 재현 :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 서울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 1쪽 참조.

stream)의 상대적 개념으로 단순히 수적 소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적으로 대등관계를 이루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권력과 세력의 중심에 있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제2의 성, 남성의 타자인 소수자로 인식되어 온 것과 아프리카 원주민인 흑인들을 소수의 백인들이 노예로 지배했던 예제들은 숫자가 소수자를 규정짓는 잣대가 아님을 말해준다. 오늘날 미국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중심부에 있는 유대인들도 절대 수적 우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엄연히 미국사회의 주류이자 메이저리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들뢰즈와 가타리는 마이너리티-소수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메이저리티-다수자 내지 다수성에 대해 척도적인 것, 그래서 척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수적'이 '지배적' '주류적'이며 권력이 함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면 '소수적'이란 그 지배적인 것과 다수적인 것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sup>7)</sup> 즉 소수자집단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문화정치학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 안에서 문화적·지정학적 뿐만 아니라 종족·종교·인종·계급에 의해 테크놀로지·교육·인권·경제권 등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난 타자들인 것이다.<sup>8)</sup>

다문화주의 담론과 함께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제고되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상 역사적으로 마이너리티는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sup>9)</sup>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담론은 끊임없이 문학 텍스트에서 제기되어 왔다. 민족적 결합이라는 내부적 연대성과 주류집단 편입이라는 명제 아래, 소수자 집단은 갈등을 유발하며 언제나 주류 권력집단의 주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때문에 의례 소수자의 문학이란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색채를 풍기기 마련이다.

7) 질들뢰즈·펠릭스카타리 공저/ 이진경 역, 《카프카》, 서울: 동문선, 2001, 43쪽 주1) 참조.

8)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9쪽 참조.

9) 식민지에서의 토착민, 백인이 우세한 미국에서의 흑인, 그리스도(프로테스탄트)교도가 우세한 서양 각국에서의 유대인이나 가톨릭교도, 일본의 未解放 부락민 등이 전형적인 소수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탈북자, 이민자, 동성애자 등 새로운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고 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소수집단 문학은 지배집단의 언어권에서 소수집단이 지탱해나가는 문학이며 언어의 탈영토화(문화·지리적 이탈 및 소외), 정치성(개인적인 것과 정치성의 직접적 연결), 집단적 가치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들 특징들을 종합하면 소수자 문학이란 다수집단의 가치나 지배적인 형태에 도전하는 문화정치적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런 관점에서 ‘효녀’ ‘충신’의 지배권력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樂府〈木蘭詩〉의 목란을 주시하면, 그녀는 성적 타자인 여성이자, 선비족이라는 소수민족이자 피지배계층이면서, 주류인 유가규범에서 벗어난 유목문화의 전통을 지닌 문화적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너리티적 특수성이야말로 1,500년 가까이 다양한 장르에서古今과 동서양을 초월하여 목란이 주제와 형상을 변화시키며 다양하게 각색될 수 있도록 한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즉 혈통적·젠더적·문화적·사상적·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적 요소를 소지한 목란이 주류인 漢族·남성·儒家·지배집단을 상대로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는 불평등과 차별을 대변하고 그들에 저항함으로써 대리만족과 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기나긴 문학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이너리티 담론에서 중국고전문학 속의 인물인 목란을 소재로 삼은 《여인무사》를 주목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주제와 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 사회나, 다인종·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문학으로서 중요한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무사》는 1976년 미국에서 화교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즈음에 발표되었다. 1960년대 활성화된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에 다문화주의를 확산시켰고 미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65년 이민법 자유화는 1848년 미국의 중국인 노동자 유입 이후 항상 차별적 대우를 받아오던 중국인들이 법적 미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들 중국인들은 ‘아시아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시작했다. 아

10) 정진봉 편저, 《미국 소수민족 문학-중심에서 주변으로》, 도서출판 동인, 2010, 23쪽 참조.

시아게 미국학생들을 중심으로 착취, 수탈, 인종 차별을 거부하면서 미국 참정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이 출발하고자 했던 일련의 운동들을 통해 소수민족 학이 탄생하기도 했다.<sup>11)</sup> 《여인무사》는 이러한 이민자,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의 역사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 2. 극복대상으로서의 여성성

킹스톤의 중국 이름은 湯亭亭이며 캘리포니아의 스톡톤(Stockton)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초·중·고등·대학까지 미국 교육을 받고, 6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미국 중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던 전형적인 이민 2세대이다. 《여인무사》는 킹스톤이 이민 1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여인무사》에 묘사된 다각적 갈등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작품에서 킹스톤은 중국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비문화적인 언사와 행위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다.

《여인무사》는 〈이름 없는 여자(No Name Woman, 無名女子)〉·〈백호산 수련(Whiet Tigers, 白虎山學道)〉·〈샤먼(Shamen, 鄉村醫生)〉·〈서쪽 궁궐에서(At the Western Palace, 西宮門外)〉·〈오랑캐의 갈대 피리를 위한 노래(A Song for a Barbarian Reed Pipe, 羌笛野曲)〉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서 주요인물은 간통죄로 이웃의 질타를 못 견뎌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無名의 고모, 병약한 부친대신 男裝從軍하여 기개를 드높인 여성영웅 목란, 의사로서의 재능과 귀신도 물리칠 대담함을 지닌 어머니 勇蘭, 외도한 남편을 찾아 미국 땅을 찾았다가 버림받아 정신이상자가 된 이모 月蘭, 12년 동안 오랑캐에게 억류된 슬픔을 시로 승화시킨 여성시인 蔡琰 등 모두 여성들이다. 이들 여성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킹스톤은 중국여성의 삶과 정신세계를 담론하고 있다.

11) 장태환, 『아시아 아메리칸-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4, 34-35쪽 참조.

남성의 他者, 제2의 성으로서 여성의 문제는 수천 년 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의와 쟁론이 되고 있다. 봉건 이데올로기의 가부장적 남녀관에 뿌리를 둔 전통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정치·사회·문화의 주류인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물론 魏晉南北朝나 唐代처럼 여성들이 군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권을 행사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권리를 누리던 시기도 있었고, 여성의 권리가 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여성학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던 시기도 존재했다. 그러나 漢族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는 대체로 유가의 이념이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였으며, 심지어 이민족 정권에서도 漢族의 문화적 우수성을 흠모한 이민족들이 유가를 숭상하면서 유가는 사회 중심사상으로 정착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거나, ‘여자는 화근(女人是禍水)’이며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女子無才是德)’이라는 등 유가의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관념이 통념적 남녀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차별적 관념이 중국 본토를 떠나 있는 이민자들인 화교 가정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여전히 존재해 오고 있음을 킹스톤은 華人 남성들의 언행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父權이 강조되는 가부장적 화교사회는 여성에 대한 구속과 억압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계집애를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차라리 거위를 키우는 게 낫지요.” “딸을 키우는 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셈이지요.  
(There's no profit in raising girls. Better to raise geese than girls.  
When you raise girls, you're raising children for strangers.)<sup>12)</sup>

화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여성비하 발언들로 킹스톤은 인격적 모독과 굴욕감을 느낀다. 축산물보다 못한 대우와 남의 집 식구라는 시선에 대해 킹스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머니는 혼외정사로 출산한 고모의 비극적 삶을 갖 월경을 시작한 주인공에게 들려주었다. 킹스톤은 고모를 통해 변변한 이름조차 없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인격적 모독을 감수하면서도 남성의 그늘로 살아

12) Maxine Hong Kingston, 《The Woman Warrior : a Memories of Girlhood Among Goasts》, Vintage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989, 46쪽.

가야하는 중국여성의 고단하고 불평등한 삶이 주요 담론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는 딸이었을 것이다. 아들이었다면 용서받을 희망이 조금은 있었으니까.(It was probably a girl : there is some hope of forgiveness for boys.)

여자는 목숨조차 중시될 수 없다는 킹스틴의 독백은 중국 전통사회의 '여자는 곧 화근(女人是禍水)'라는 남녀 차별적 관념이 여전히 화교가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화교사회는 중국고대문학 속의 '규방'처럼 주인공의 꿈과 희망을 가두는 동굴처럼 묘사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두 겹의 사슬이 되어 내 발을 묶고 있다.(Even now China wraps double binds around my feet.)<sup>13)</sup>

킹스틴은 중국적인 것을 자신의 삶과 사고를 읊아내는 사슬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가 겪는 여성으로서의 불평등은 이국 멀리 미국 땅에서도 그녀를 가두고 있으며 집단 폭언과 폭압, 강박은 국경 넘어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중국여성들을 속박하는 윤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방을 벗어나는데 있어서 목란이 지닌 영웅성은 비극적 삶에의 저항성을 분명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목란이 漢族 문화에 속해 있지만, 군사력과 생활력을 갖춘 유목적 혈통을 지닌 문화 혼종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수렵과 목축이 생업으로 부족 간의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유목생활을 통해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sup>14)</sup> 국가는 법률과 제도로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였다.<sup>15)</sup> 따라서 이민족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교적

13) 《The Woman Warrior》, 48쪽.

14) 《鄴中記》, 《晉書》, 《魏書》 등의 기록은 이민족 여성들의 참전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15) 여성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는데, 孝文帝 太和 9년 均田令을 보면 남자 나이 15세 이상은 40畝, 부인은 20畝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魏書》卷110 志第16(食貨志): 「諸男夫十五以上, 受露田四十畝, 婦人二十畝, 奴婢依良, 丁牛一頭受田三十畝, 限四

공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목 혈통의 목란이 유가 윤리 중 가장장적 질서를 구축하는 가장 근본인 ‘孝’라는 윤리로 자신을 가두는 동굴을 벗어나는데 성공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목란이 봉건예교 지향의 유가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마지막 단락은 ‘충효’ 중심의 유가 윤리에 맞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효녀’의 윤리를 완성시킴으로써 유가의 사회교화적 이미지 형성에 동조한 듯하다.

爺孃聞女來，	出郭相扶將。	부모 여식 돌아오니	곽밖에서 환영하고
阿姊聞妹來，	當戶理紅妝。	언니는 동생 귀향에	집에서 단장하고
小弟聞姊來，	磨刀霍霍向豬羊	남동생 누이 맞아 칼	갈아 돼지 양 잡네
開我東閣門，	坐我西閣床。	동각문 열고 들어가,	서각 의자에 앉아
脫我戰時袍，	著我舊時裳	전쟁 옷 벗어놓고,	옛 시절 치마 입고
當窗理雲鬢，	對鏡貼花黃。	창가서 귀밑머리 손질,	거울앞 화황붙여
出門看火伴，	火伴皆驚惶：	전우 보니, 전우 모두	당황하고 놀라며
同行十二年，	不知木蘭是女郎。	십이년 세월 목란이	여자인 줄 몰랐네

금의환향의 떠들썩함은 목란의 성공을 의미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용맹으로 유가 이념을 점령한 목란의 승리는 보수적 화교사회에 갇힌 킹스톤을 충분히 자극했다. 그렇다면 킹스톤은 목란의 성공을 현대 미국의 화교사회에 어떻게 재현했을까?

나는 집을 떠나 멀리 대학에 갔다. 1960년대의 버클리 대학에. 나는 공부를 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데모에 참가했다. 그러나 나는 남자로 변하지는 않았다. 나는 남자로 변해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이 닭과 돼지를 잡아주는 환영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환영은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온 남동생에게 베풀어졌다. 내가 베트남에 갔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I went away to college - Berkeley in the sixties- and I studies, and I marched to change the world, but I did not turn into a boy. I would have liked to bring myself back as a boy for

牛。所授之田率倍之，三易之田再倍之，以供耕作及還受之盈縮。諸麻布之士，婦人別給麻田五畝，奴婢依良。皆從還受之法。諸有舉戶老小殘無授田者，年十一已上及瘡者，各授以半夫田；年逾七十者，不還所受；寡婦守志者，雖免課亦授婦田。」(京仁文化社, 1999, 2852-2854쪽)

my parents to welcome with chickens and pigs. That was for my brother, who returned alive from Vietnam. If I went to Vietnam, I would not come back.)

킹스턴 역시 목란처럼 세상으로 출정하여 부모의 환대를 받는 변화를 꿈꾸지만 남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자 그런 세상을 떠나고 싶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樂府〈木蘭詩〉의 목란이 자신을 가두는 봉건예교 지향의 유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보다는 그 이념을 완수함으로써 오히려 동굴의 벽을 극복한 것과는 분명 다른 행보이다. 중국사회와 미국사회의 여성영웅 목란의 다른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회철학자 헨리 로즈먼트(Henry Rosement)가 정의하는 중국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중국사회의 특징을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그 속에서 부여되는 역할들의 총체일 뿐,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역할이 바뀌며 정체성도 당연히 바뀐다.”라 정의했다.<sup>16)</sup> ‘효’에서 출발하여 ‘충’이라는 儒家 공동체 윤리의무를 완수한 후 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일원인 여성으로 회귀 했던 樂府〈木蘭詩〉의 목란과는 달리, 미국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킹스턴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한 후 공동체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중국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나는 이제 옛날 속담과 이야기로 나를 묶는 우리 차이나타운을 죄 지은 듯 걸어 다니기를 거부한다. 그 여전사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I refuse to shy my way anymore through our Chinatown, which takes me with the old saying and the stories. The swordswoman and I are not dissimilar.)<sup>17)</sup>

그녀는 사회문화적 교화의 역할을 요구하는 동양적인 공동체적 질서에 순응하는 대신 불합리한 현실을 거부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아 발견과 자기 정체성 확립’

16) 리처드니스벳(Richard E. Nisbett)/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김영사, 2004, 30-34쪽/ 53쪽.

17) 《The Woman Warrior》, 53쪽.

이라는 개인 성장의 행보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과 사회의 딸, 아내, 어머니라는 공동체적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서구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속 목란이 궁극적 지향점은 일치하는데, 그것은 양성평등의 완성이다.

雄兔脚撲朔, 雌兔眼迷离。 수토끼 늦기도 하고 암토끼 분명치 못하  
거늘  
兩兔傍地走, 安能辨我是雄雌? 두 마리 같이 뛰니, 누가 암수 가려내랴?

여자들의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더 많이 일하라. 그 일도 우리 일이 되  
리라.(Do the Women's work : then do more work, which will  
become ours too.)<sup>18)</sup>

戰後 목란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성을 되찾아 기존 사회질서로 복귀하는 듯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깔려 있다. 암수 토끼가 함께 뛰는 모습은 남녀 성역할이 동등하게 발현되는 이상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킹스틴 역시 여성성 극복의 해결방안으로 자신의 몫 이상의 일을 찾아 완수하는 적극성을 제시하고 있다. 樂府 목란의 양성평등 의식은 킹스틴으로 하여금 미국의 인종차별과 화교남성의 성차별적 사회의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여인 무사처럼 자아를 확립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孝'라는 봉건예교의 껍질 안에 감추어진 '尙武'와 '용맹'의 혈통을 지닌 〈木蘭詩〉의 목란처럼, 킹스틴 역시 비인격적 전통을 고수하는 화교사회의 차별 속에서 여성성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무사로 굳건히 살아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 3. 유목적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 집단이 특정한 이유로 그들의 고향땅을 떠나 다른 지역

18) 《The Woman Warrior》, 48쪽.

이나 국가로 흡여지게 된 현상 또는 그러한 민족 집단이나 사람을 뜻한다.<sup>19)</sup>

현대사회 정치적 의미로서 디아스포라는 제3세계 국민들의 제1세계로의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 소수자 국가(minor state) 국민의 다수자 국가(major state)로의 이동을 뜻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종·민족·문화적 차별과 억압을 받았으며, 나름의 소수문화를 형성하며 억압적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과 도전, 소통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樂府〈木蘭詩〉의 北魏 소녀 목란은 이민족인 선비족으로서 漢族의 유가사회에 머무는 타자인 디아스포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목민인 鮮卑族 拓拔部の 후예인 珪에 의해 건국된 北魏 사회의 여성관은 三從과 婦德·婦言·婦容·婦功의 四德을 중시하고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女子無才是德)’을 강조하던 유가 봉건예교의 여성상과는 달리 尙武와 생활력으로 무장한 여성이 이상적이었음은 상술한 바 있다. 그런데 樂府〈木蘭詩〉의 목란은 승마와 유목 대신 베를 짜며 婦功에 열중하는 유가문화의 여성상을 보이고 있다.

唧唧復唧唧，木蘭當戶織 덜그럭 덜그럭, 목란이 방에서 베를 짜네  
不聞機杼聲，惟聞女嘆息 베틀소리 들리지 않더니, 긴 한숨소리 들리네  
問女何所思？問女何所憶？ 무슨 생각하나 물으니, 무슨 걱정인가 물으니  
女亦無所思，女亦無所憶。 소녀 다른 생각 없고 다른 걱정 없사오나  
昨夜見軍帖，可汗大點兵： 어젯밤 군첩 보니, 可汗이 군사 모으신 다네  
軍書十二卷，卷卷有爺名。 군첩 열두 권, 권권마다 아버지 함자 있네

사실상 五胡를 제압하고 北魏를 건국한 선비족은 정치적 주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열등감은 漢族과 유가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변질되어 漢族과 유가문화를 숭상하기에 이르렀다. 상무기질이 투철한 유목

19) 디아스포라의 어원인 그리스어의 διασπορά(diaspora)는 원래 ‘흩어지다’, ‘펼치다’, ‘분산되다’ 혹은 ‘이산(離散)’이라는 뜻이다. 역사적 서술에서 디아스포라는 헬레니즘 문화 시대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 근역과 로마 세계에서의 유대인 이산을 가리킨다.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이산의 유대인’ 또는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황훈성 엮음, 《미국 문화의 마이너리티 담론 읽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23쪽 참조)

여성이 규방에서 婦功인 방식에 열중하는 장면은 분명 유가문화에 동화된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쇠한 부친을 걱정하는 여식의 마음가짐 또한 충효를 기본 윤리로 삼는 유가적 소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동화는 이민족들의 우수한 漢族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北魏의 孝文帝(467-499)는 漢族문화를 숭상하여 洛陽으로 천도한 후 적극적인 漢化 정책을 시행하였다. 均田令 실시를 비롯, 문화적으로는 胡服 금지· 漢語사용 장려· 선비족과 漢族의 통혼 등의 정책으로 선비족과 漢族의 융화를 적극 꾀했다. 北魏 통치자들이 漢族의 귀족 생활방식과 사고를 숭상하게 되면서 漢族사상의 근간인 儒家사상이 北魏 사회의 생활방식과 사고체계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삶과 생활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활동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했던 선비족 여성들은 점차 가정을 지키며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경정착민 문화에 흡수되었다. 그러니까 목란은 지배민족인 선비족의 혈통을 지녔지만, 문화적으로 우수한 漢族의 문화에 흡수·동화된 문화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여인무사》에서는 이러한 목란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이 중국계 미국인,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옛날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도대체 누가 정확히 우리의 적인지 알아 내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단박에 그들을 알아본다. 현대 미국의 사업가 차림의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보다 몇 십 센티미터나 커서 도저히 눈을 마주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상전들이다. (From the fairy tales, I've learned exactly who the enemy are. I easily recognized them - business -suited in their modern American executive guise, each both two feet taller than I am and impossible to meet eye to eye.)<sup>20)</sup>

킹스톤은 백인들의 국가 미국에서 주류인 그들을 거대하고 대적하기 힘든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자산계급의 횡포와 만행으로

20) 《The Woman Warrior》, 48쪽.

고통 받고 차별받는 미국사회의 이민자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디아스포라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향(home)'과 '타향(away)'의 관계에서 대개의 경우 타향은 일종의 상실을 뜻하는데, 킹스틴에게 있어서 상실은 바로 고향과 타향 두 곳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21)</sup>

중국계 미국여성으로서 킹스틴은 혈통적 뿌리인 중국을 향수와 분노라는 이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서 오는 소식들은 늘 혼란스러웠다...그들은 모두 처형되었으며, 두 엄지손가락이 뒤틀려 뺏힌 아주머니는 물에 빠져 자살했다... 혁명가들은 넷째 아줌마와 아저씨의 가게와 집, 토지를 몰수했다(The news from china has been confusing...They were all executed, and the aunt whose thumbs were twisted off drowned herself...The revolutionaries had taken Fourth Aunt and Uncle's store, house and lands.)

미국에서 타자인 킹스틴은 중국에서도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인처럼 비참함과 폭력이 난무하는 중국을 생경해 하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중국은 킹스틴에게 기괴하고 심지어 엽기적이다. 중국인들은 난폭하며 자기중심적이며 야만적이다. 모국에 대한 이러한 이질감은 중국의 축소판인 화교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그러기에 그녀는 법적 국가인 미국과 혈통적 국가인 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디아스포라로서 킹스틴의 갈등은 세계에 대한 위협에서 절정에 이른다. 미국 자본주의의 횡포는 화교사회 여성에게 가해자였던 화교 남성들조차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항의 선두에 선 것은 화교 남성들의 폭압 대상이던 킹스틴 자신이었다.

21)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갈등은 ①분산과 흩어짐(모국으로부터) ②집단지 정신적 외상(모국에 있는 동안) ③문화적 개화(타향에 있는 동안) ④주류사회와의 어려운 관계(타향에 있는 동안) ⑤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고향과 타향) ⑥귀환 운동의 장려(타향에서 고향으로) 등 있다. (버린더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니 지음/정영주 옮김,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예코 리브르, 2014, 27-28쪽 참조)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인종 차별주의자들만이 아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우리 가족에게 양식과 일자리를 주지 않는 폭군들이다. 내 일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토지이다...내 가족을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나는 분노에 차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세탁소를 되찾아야만 했을 것이다.(It's not just the stupid racists that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but the tyrants who for whatever reason can deny my family food and work. My job is my own only land...To avenge my family...I'd have to rage cross the United States to take back the laundry in New York and the one in California.)<sup>22)</sup>

킹스톤은 정치적 주류이나 문화적 비주류였던 樂府 목란이 漢族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미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복수를 꿈꾼다. 주류 사회의 타자인 디아스포라로서 킹스톤이 선택한 궁극적인 갈등극복은 주체적인 '미국 시민 되기'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 킹스톤이 《여인무사》 이후 작품에서는 자신이 미국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태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모두 모국어어가 아닌 영어로 씌어졌으며, 미국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미국문학으로 수용되기를 기대했다는 사실 역시 이를 증명한다.<sup>23)</sup> 들뢰즈와 가타리 (Deleuze and Guattari 2001: 76-78)는 '되기(becoming)'로서의 주체화에 대해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 양자 모두 제3의 존재로 변이되는 과정으로서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sup>24)</sup> 이런 관점에서 킹스톤의 '미국 시민 되기'란 인종과 국경의 경계를 허물 것과 동서양 문화의 혼종을 인정할 것을 미국 사회에 정식으로 성토함으로써 시도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백인 주류사회의 소수인종들에 대한 시혜를 바라거나, 백인이 되고 싶거나 백인 문화에 동화되고 싶다는 脫민족적·脫동양적 의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되기'는 미국 사회에 소수인종들의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recognition), 포함(inclusion), 관용(tolerance)을 요구함으로써 소수인종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 구

22) 《The Woman Warrior》, 49쪽.

23) 《미국 소수민족 문학-중심에서 주변으로》, 365쪽.

24) 심승우, 《다문화 시대의 도전과 정치통합의 전략》, 이담, 2013, 131쪽 참조.

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체적인 미국인 되기'로 귀결된다.<sup>25)</sup> 결과적으로 킹스틴은 미국인으로서 법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찾기와 동양인 이주자들의 노동에의 정당한 대가요구 등의 당위성을 문학적 성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말한다. 남성우월주의에 물든 중국남성들을 대신해 미국사회에 복수를 결심하겠다고. 중국인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전설 속의 여전사 화목란과 자신은 결국 다르지 않다고. 그것은 스스로 감옥 같은 차이나타운에서 벗어나 미국 백인 사회에 성공적으로 입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그리고 킹스틴의 꿈은 《여인무사》를 통해 실현되었다. 남성의 타자인 여성으로서의 저항, 미국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노동력 착취에 대한 고발, 인종적 무시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을 그녀는 백인의 언어인 영어로 완벽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여인무사》의 목란은 저항과 혁명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樂府 목란과 다르지만, 주류 문화와의 갈등해소-화해-동화에 이르는 문화 상동화(homologation) 측면에서는 같은 궤적을 걷고 있다. 이들 두 작품에서 목란은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했다. 그러나 특정 역사지점에서 주체가 되기를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문화적 이질자로 도태시키지 않고 주류 문화에 합류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의미의 적극성에서 일치하고 있다.

#### 4. 젠더와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프로이트의 출애굽 트라우마처럼 한 집단 구성원이 비슷한 처지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이<sup>26)</sup> 《여인무사》에도 재현되어 있다. 주인공은 여성, 중국계 이민자, 문화적 중간자 등 타자로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25) 안은주, 〈맥신 홍 킹스틴의 '중국'과 '미국' 재현 :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가능성〉, 서울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 10쪽 참조.

26) 《상처와 치유의 서사》, 9쪽 참조.

중국계 미국인들여, 그대들은 자신 속의 어떤 것들이 중국적인 것인지 알고자 할 때, 당신은 어린 시절, 가난, 광기, 한 가족, 당신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그에 맞춰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 등과 중국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무엇이 중국 전통이고 무엇이 중국영화인가? (chinese Americans, when you try to understand what things in you are Chinese, how do you separate what is peculiar to childhood, to poverty, insanities, one family, your mother who marks your growing with stories, from what is chinese? )

미국 태생의 미국 교육을 받은 법적 미국인인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어린 시절, 가난, 광기, 한 가족' 등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가본적도 없는 고향 중국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었다.

젠더와 디아스포라라는 이중의 트라우마를 겪는 킹스턴은 그 탈출구로 '꿈'의 기제를 선택한다.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의 변신은 무의식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 꿈의 경우에는 바로 그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된 사건의 정황 속으로 반복적으로 회귀시킨다고 했다.<sup>27)</sup> '꿈의 내용은 소원성취(a fulfillment of a wish)이며 그 동기는 소원(Interpretation of Dreams)'이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을<sup>28)</sup> 적용하면, 킹스턴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목란에 대한 꿈을 배치하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킹스턴은 목란 이야기에 현실과 환상의 경계성 꿈을 배치하여 동양적 신비, 환상, 무협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미래를 투영시켜 나타내고 있다. 즉 외상적 사건을 꿈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상처받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언어를 통해 치료하고 있다.<sup>29)</sup>

27) 한국 근대영미소설학회, 《상처와 치유의 서사》, 신아사, 2013, 8쪽.

28) 송진수, 〈문학텍스트에 재현된 정신분석담론〉, 경북대 영문과 박사논문, 2013.12, 26쪽 참조.

29) 프로이트는 의식을 벗어나는 무의식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더 본질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한 자크라강 역시 인간의 세계는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언어와 상상적 작용을 통해 재구성된 '상상계'라고 설명한다. 이들에

킹스톤이 제시하는 트라우마의 극복에는 세 가지 커다란 전환점이 있다.

첫 번째는 15년의 혹독한 수련기간이다. 킹스톤은 樂府 〈木蘭詩〉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인공의 수련 과정을 삽입함으로써 성장과 자아 찾기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木蘭詩〉의 목란은 이미 준비된 영웅의 자질과 모습을 갖추고 있다. 능숙하게 전쟁용품을 일사천리로 준비하는<sup>30)</sup> 목란의 모습과 전쟁의 승리, 천자의 관직 하사만을 언급했던 〈木蘭詩〉에서는 목란이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잦은 전란과 유목생활로 단련된 '전투력'과 '尙武정신'으로 무장한 완성된 영웅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여인무사》의 긴 수련과정은 인격과 재능이 미성숙했던 목란이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성장담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15년의 수련을 통해 주인공은 무술, 자신을 다스리는 법, 생존능력 및 자연 순응의 이치를 깨닫고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한다.

나는 우주가 끝없이 광활하듯, 역설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광대하게 넓히는 법을 배웠다. (I learn to make my mind large, as the universe is large, so that there is room for paradox.)<sup>31)</sup>

킹스톤은 트라우마 극복을 긴 세월의 수련과 인내, 기다림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산 속은 자신의 투쟁터이자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할 화교사회와 미국사회이며, 15년의 수련기간은 단식 및 무술연마, 인격수양 등으로 성숙한 인간, 즉 '주체적 미국 시민 되기'로 거듭나는 기간으로 치환된다. 수련 과정은 완성된 영웅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성장하는 영웅으로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

의하면 인간의 삶은 의식작용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을 통해 설명할 때 온전한 퍼즐로 맞춰질 수 있다. (김석, 《무의식으로의 초대-프로이트&라캉》, 김영사, 2010, 21쪽)

30) 西市買駿馬, 西市買鞍韉/ 南市買轡頭, 北市買長鞭. : 동쪽 장에서 준마 사고, 서쪽 장 안장 깔개 사며 남쪽 장 고삐 사고, 북쪽 장에서 채찍 사네  
萬里赴戎機, 關山度若飛. / 朔氣傳金柝, 寒光照鐵衣. / 將軍百戰死, 壯士十年歸 : 만 리 넘나들며 싸움터에 나서고, 나는 듯 관문 넘었네 / 북풍 쇄닥따기에 실려 오고, 찬 달빛 철갑옷 비추네 / 장군들 백전 중 전사하나, 장수되어 십년 만에 돌아오네

31) 《The Woman Warrior》, 49쪽.

으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 성장을 중시하는 서구식 개인주의가 배태되어 있다.

두 번째 트라우마 극복의 전환점은 부모와의 출정의식이다. 岳飛의 등에 '精忠報國' 네 글자를 새기고 금나라에 대항하여 송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시킨 岳飛 어머니처럼 목란의 부모 역시 목란의 등에 복수의 맹세를 새기는 출정의식을 집행하여 그녀의 출정을 독려한다.

직감적으로 나는 냄새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큰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내가 월경을 하고 붉은 꿈을 꿀 때 말할 수 있는, 금속성의 피비린내 였다.....“우리는 네 등에 복수를 새길 것이다. 우리의 맹세와 이름을 새기겠다.”...“네가 어디를 가든, 네게 무슨 일이 생기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며, 너 또한 모든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Forebodingly I caught a smell -metallic, the iron smell of blood, as when a woman gives birth, as at the sacrifice of a large animal, as when I menstruated and dreamed red dreams..... “We are going to carve revenge on your back. We’ll write out oaths and names”...“Wherever you go, whatever happen to you, people will know our sacrifice, and you’ll never forget either.”<sup>32)</sup>

한자의 '血'자는 제사에 희생의 짐승의 피를 그릇에 가득 담아 바친 모양으로 약속의 의미로 이 피를 서로 빨곤 하였다. '盟' 자는 그릇(皿)에 희생된 짐승의 피를 번갈아 빨고 신에게 맹세(盟誓)하여 약속하는 것을 뜻했다. 즉 등에 복수의 다짐을 새기는 고통스럽고 엄숙한 문신의식은 '피'와 고통이 수반되는 희생을 의미하며 여성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존여비의 중국적 전통, 미국 주류문화와 단절된 화교사회, 동양계 이민자에 대한 차별, 미국사회의 문화적 혼종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저항과 극복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식은 흡사 北魏 시대 선비족 여성들의 訟事참여나 손님 접대 및 관청에서의 구직, 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의<sup>33)</sup> 강한 생활력의 호방한

32) 《The Woman Warrior》, 34쪽.

33) 顏之推, 《顏氏家訓》: 북제의 수도 鄴都의 풍속은 오로지 부인들이 그 가문을 보존하고 있다. 시비곡직의 송사를 다루며 손님을 청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수레나 말을 타고 거리를 매우 거나 비단옷을 입고 관청에 가득하며 아들대신 관직을 구하러 다니거나 남편을 위해 역을

유목 기질이 《여인무사》의 모친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모친이 목란의 출정 독려와 승리 다짐의 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유가에서 남성에게만 독점되었던 관방의 직책이나 제사장의 역할이 여성에게 전가된 것은 성차별적 갈등을 넘어서 유목적 전통인 ‘강인한 생활력’·‘모계중심’·‘남녀평등적 이상’의 실현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라우마 극복의 세 번째 계기는 목란의 임신과 출산에서 정점을 맞고 있다. 사랑과 임신, 출산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약점은 생산과 도전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내 커다란 갑옷 안에 메고 전투가 가장 격렬한 곳으로 말을 몰았다. 탯줄이 붉은 깃발과 함께 휘날려 우리는 웃었다.(We made a sling for the baby inside my big armor, and rode back into the thickest part of the fighting. The umbilical cord flew with the red flag and made us laugh.)<sup>34)</sup>

결혼과 출산은 잔다르크 같은 처녀가 아닌 여전사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었다.(Marriage and childbirth strengthen the swordwoman, who is not a maid Joan of Arc.)<sup>35)</sup>

고모의 출산으로 대표되는 중국여성의 집단 트라우마이자 구속과 제한의 상징인 여성의 신체는 목란의 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통해 자율-선택-책임이라는 코드로 새롭게 재현되고 극복되어 세상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킹스턴이 젠더와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 담론을 구조화된 무의식적 꿈 속 이야기를 통해 구현하면서 새로운 주체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킹스턴에게 꿈의 세계는 현실세계의 도피이자 자신이 희망하

---

함을 호소하러 다니기도 한다. 이것이 恒·代 지방의 풍습이 아니겠는가? (鄴下風俗, 專以婦持門戶, 爭訟曲直, 造請逢迎, 車乘填街衢, 綺羅盈府寺, 代子求官, 爲夫訴屈. 此乃恆代之遺風乎?)(顏之推, 《顏氏家訓》卷一 治家第五, 台北: 三民書局, 1993, 40쪽)

34) 《The Woman Warrior》, 34쪽.

35) 《The Woman Warrior》, 48쪽.

고 욕망하는 세계로 진입하는 환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을 목란이라는 인물에 투영시킴으로써 미국의 차별과 중국 전통이라는 현실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여 이를 극복한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라캉의 삼세계(상상계, 상징계, 실재계)<sup>36)</sup> 이론에 따르면 라캉의 주이상스는 일반적인 쾌락이 아니라 강렬한 성적 쾌락인 동시에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 넘어서고 언어 상징도 넘어서는 전복(顛覆)의 충동이다. 향유, 향락, 희열의 의미를 포함하는 주이상스는 강렬한 쾌락이고 현실원칙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이 된다. 그런데 무의식에 잠재한 주이상스는 법과 제도를 파괴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금기를 깨고 싶어 한다.<sup>37)</sup>

주체가 타자 속에서 결여를 발견하고 타자의 욕망과 향유에 의해 빼앗긴 자신의 고유한 욕망과 향유를 되찾아야한다는 라캉의 주장처럼 킹스틴의 목란은 여성성과 타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관습과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도약을 꿈속 목란 이야기를 통해 구현해내고 있다. 즉 극단의 상황에서 초차이라는 감정의 억압 기제는 수련과 문신의식, 출산이라는 극단적 고통을 통해 극복되며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주인공이 겪은 개인적 고난, 여성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중국계 미국인 사회의 남녀차별, 중국 전통의 집단주의 문화, 미국 주류사회와 단절된 채 중국식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화교사회, 인종차별적인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의 난관과 고통 등은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치환된다.

이러한 점은 흡사 애니메이션 〈물란〉의 소녀 물란이 겪는 성장담과 맥을 같이

36) 프로이트가 꿈의 무의식을 주장했다면 라캉은 언어학을 이용해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 이론을 펼쳤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욕망에 의해 소외된 주체는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라캉은 타자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인지하고, 그러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은 이를 환상 가로지르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징계 너머 존재하는 실재계를 직면함으로써 얻는 주이상스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송진수, 〈문학텍스트에 재현된 정신분석담론-실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3, 78쪽 참조)

37) <http://blog.naver.com/mlm00?Redirect=Log&logNo=90147202949>

한다. 중국문학에서 재편한 목란 이야기의 대부분은 忠孝 등의 거대담론을 논의하는데 반해, 《여인무사》와 〈물란〉에서는 주인공 개인의 갈등 극복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동양적인 공동체적 사고와 대치되는 서양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다. 킹스턴은 동양인의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서양인의 개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중국의 봉건적인 공동체적 이데올로기와 유색인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여성과 유색인 그리고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권을 찾아 성장하고자 하였으며, 이 점에서 《여인무사》는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나가는 말

하나의 문학 텍스트는 형이상학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언어영역을 뛰어넘는 각 시대의 생명 존재라는 Hans · Robert · Jauss의 정의는<sup>38)</sup>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성권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천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문학 텍스트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수용되고 전파되는 것 또한 시대의 다양성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생명체적 존재인 문학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킹스턴의 《여인무사》는 목란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을 읽고 이상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충족시킨 가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문화 분석의 범주에서 미국사회 소수민족과 소수민족문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작품이다.

소수자에 대한 정치학 내지 윤리학은 '고통과 동정의 윤리학'과 '정체성(identity, 동일성)의 윤리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소수자란 '고통 받는 자'이고 무언가 '결여된 자'로서 동정과 연민이 필요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38) Hans · Robert · Jauss(獨), 周寧·金元浦 譯, 《文學接受與文學理論》,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87.

는 레비나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학적 시선은 철저히 다수자(majority)의 시선 속에 있는 타자로서의 비주체적인 소수자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sup>39)</sup> 소수자로서 킹스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동정과 연민을 시선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사회와 문화의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인종 차별, 문화 갈등, 성차별, 세대 간 투쟁, 중국 봉건주의의 폐쇄성, 차별받는 여성들의 삶 등 자신의 경험과 갈등을 고대 신화와 무협적 판타지 등을 통해 비판한 《여인무사》는 문학적으로도 풍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사회문화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란이라는 신화적 여성영웅은 소수자들에게 고통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자들에게는 소수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목란을 통해 제시하는 킹스톤의 윤리적·정치적·문화적 방향성은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에게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목란이 갖는 마이너리티적 의미성은 이러한 점에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漢族이 아닌 鮮卑族으로서, 남성의 타자인 여성으로서, 三從四德의 유가 문화권이 아닌 승마와 유목의 이민족 문화권에 속한 사회적 마이너리티였던 목란은 《여인무사》를 통해 중국과 미국문화를 공유한 이민 2세대 여성의 마이너리티적 삶을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갈등 극복을 통해 긍정적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사상적 리더로 재현되었다. 이점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타자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란의 이민족성·여성성·문화의 혼종성·사상적 교화성·사회성은 마이너리티적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반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소수자에서 주체적으로 다수자 영역의 입성을 선언한 점, 동정과 연민의 '타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문화영역을 구축하는 주체자로 자신을 인식한 점, 사회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서 성장한 점, 권력을 지닌 다수자에 대한 경계자로서의 자격을 지닐 수 있게 된 점으로 작품에서 제시

39)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서울:휴머니스트, 2010, 73-76쪽.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인무사》의 목란이 마이너리티로서 갖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Maxine Hong Kingston, 《The Woman Warrior: a Memories of Girlhood Among Goasts》, Vintage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989.
- 湯亭亭 著/ 李劍波·陸承毅 譯, 《女勇士—一個生活在“鬼”中間的女孩的童年回憶》, 瀛江出版社, 1998.2.
- 맥신 홍 킹스턴·서숙 옮김, 《女전사》, 황금가지, 1998.
- 곽차섭·임병철 엮음, 《역사속의 소수자들》, 푸른역사, 2009.
- 김 석, 《무의식으로의 초대-프로이트&라캉》, 김영사, 2010.
- 로지 브라이도터 지음·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 리처드니스벳(Richard E. Nisbett)/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김영사, 2004.
- 심승우, 《다문화 시대의 도전과 정치통합의 전략》, 이담, 2013.
- 질들뢰즈·펠릭스카타리 공저/ 이진경 역, 《카프카》, 서울: 동문선, 2001.
- 유효중·이와마야키코 엮음,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12.
- 유선모, 《미국소수민족작가론》, 경기대학교학술진흥원, 1994.
-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서울: 휴머니스트, 2010.
- 정재서 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전(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정진농 편저, 《미국 소수민족 문학-중심에서 주변으로》, 도서출판 동인, 2010.
- 장태한, 《아시아인 아메리칸-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4.
- 한국 근대영미소설학회, 《상처와 치유의 서사》, 신아사, 2013.
- 테리 이글턴 외 지음/ 김준환 옮김,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인간사랑, 2011.
- 황훈성 엮음, 《미국 문화의 마이너리티 담론 읽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 송진수, 〈문학텍스트에 재현된 정신분석담론-실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3.
- 심승우,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 성균관

-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심영희, 〈다문화소설의 유목적 주체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2호, 2013.
- 안은주, 〈맥신 홍 킹스턴의 '중국'과 '미국' 재현 : 다문화주의 극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담론의 기능성〉, 서울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2006.
- 유강하, 〈이야기의 재구성, 治癒를 위한 스토리텔링 : 木蘭 故事 再編: 킹스턴의 《여인무사》〈흰 호랑이들〉장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 (2009년 6월).

〈英文提要〉

The reason why we are worthy of notice on <The Women warrior> which was written based on the Chinese character "Mulan"(<Mulanshi(木蘭詩)>) in minority discourse is that it has cultivated important cultural domains in modern society in which subject and discourse of minority have been raised and America society which has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aspects.

Mythical heroine named Mulan suggested that minority women should challenge to acquire new life through the overcoming of pain, which assured that minorities had ability and potential power.

Due to the uniqu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Mulan, it propounded the social messages such as femininity, ethnicity, sociality, popularity entertaining, and convoyed them to the public, moreover to build the unique literary domain. That kind of qualities were combined with her feature of minority and created a synergy effect.

It was incredibly inspired that Mulan as a social minority icon who was belonging to equestrian culture and nomadic tribes not a part of Confucian culture was realized a person who could not only resolve conflicts and but also as an ideological leader who drove newly positive life as well.

Ultimately Mulan declared to assimilate into the America mainstream society, acknowledged herself as a main body of culture who can construct new culture area, reached full growth as a capable person who can change society and culture, and became qualified as a guard who can alert the sovereign majority.

關鍵詞 : 물란,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젠더, 디아스포라, 트라우마, 다문화주의, 이민자, 木蘭詩, Mulan, minority, gender, diaspora, trauma, multiculturalism, nomadic subject 《The Woman Warrior》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